

일주문

임학사 삼존불 봉불 증명
서암 전 조계종 종정은 11일 충북 괴산군 임학사 대웅전 삼존불 봉불식과 후불탱화·신중탱화 점안법회를 증명했다.

도선시서 700명에 보살계
현성 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9일 부처님유년제일을 맞아 도선사 호국참회원에서 700여명에 보살계를 수계했다.

문무왕 수증릉서 수륙재
남정 총화종 총무원장은 29일 경주 문무왕 수증릉에서 국운옹장과 안민태평을 기원하는 영산수륙대재를 봉행한다.

서울시장 표창 받아
자용 군불교진흥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달 22일 고건 서울시장으로부터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

불교텔레비전 출연
회정 진각종 총무부장은 22일부터 26일까지 연속으로 불교텔레비전의 '향기로운 말씀'에 출연, 설법한다.

청주 정토법당 개원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는 11일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81-17에 청주 정토법당을 열었다. (043)275-5951.

선원사 대웅전 기공
성원강화 선원사 주지는 12일 대웅전 불사에 착공, 내달 16일 오전 10시에 상량식을 갖는다.

월드컵 문화운동 강사
법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은 19일 2002년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문화시민운동 강사로 위촉됐다.

삼화불교대 신입생 MT
혜인 삼화불교대학장은 13-15일 안성수련원으로 제 12회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연합 MT를 다녀왔다.

'선어의 묘미' 출판회
정광수 해동문화 주간은 31일 오후 2시 서울 대우주택문화관에서 <선어의 묘미>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대둔사·무량사 성보 절도범 검거
문화재청·서초서 감사패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대둔사와 무량사에서 발생한 성보 문화재 도난범을 검거한 문화재청 사법단속반과 서초경찰서에 13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강정태 과장, 윤광진 학예연구관, 강신태·도종필 사법단속담당과 서초경찰서 조삼량 경찰서장, 이종석 형사과장, 장인성 형사계장, 조상복 강력반장, 양수웅 경사 등 13명이 이날 감사패와 포상금을 받았다. 지난 2월 13일과 19일 대둔사 불서 13권과 무량사 불상 3구(충남유형문화재 제100호) 등 성보문화재 16점을 회수한 공로다.
지난 89년 충남 무량사에서 도난당한 금동보살좌상 등 불상 3점은 12년이 지나 다시 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경찰과 문화재청 사법단속반의 끈질긴 공조수사로 2월 19일 서울 낙원동 모 회랑에 이 불상들을 판매하려던 범인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두 사건을 지휘한 장인성 경감은 "도난 문화재는 무량사 사건처럼 공소시효가 지나 잊혀져 갈 때쯤 시중에 흘러나온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끝까지 포기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장 경감은 문화재사범 수사에서는 알아주는 베테랑. "성보문화재가 도난당할 때마다 질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장 경감은 "지난 95년 도난당한 송광사 16조사 진영도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장 경감은 "성보문화재는 종교적 의미를 떠나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이다.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지키는 건 온 국민의 관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jirny@buddhopia.com)



조계종 포교사단 출범1주년 법회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은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지하 중앙종회의장, 법장 수덕사 주지, 원택 총무부장, 상운 포교부장,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등 3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1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김기병 단장은 "올해는 특히 교육 포교 조직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 위안잔치
주최 불교라이온스클럽 대안포교사단

대한불자가수회(회장 장미화)는 동블라이온스와 공동으로 신림사 화북지관에서 관내 어르신 200여 명을 모시고 노인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국, 머루와다래, 현당, 김경현 등 불자가수회 회원들이 민요, 트로트 등 흥겨운 노래공연을 했고, 동블라이온스 회원 30여 명이 음식준비 등을 도왔다. 한편 정만수 대한불교화회장은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빵과 우유를 보시했다.



김정련화 보살 일산병원에 1억 기탁

독실한 불교신도인 김정련화(사진 오른쪽) 보살이 14일 오전 동국대 송석구 총장을 방문, 동국대 의과대학·한의과대학 부속 일산병원 건립기금으로 새당라고 1억원을 전달했다. 정련화 보살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의료시설에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마야문화원 서울 인사동에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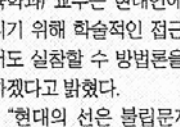
불교 및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마야문화원(원장 김문웅)이 13일 개원식을 갖고 19일부터 불화교실, 도예강좌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열고 있다. 13일 개원식에는 법왕정사 청견 스님, 광운포교원 법현 스님, 생명나눔실천회 손양호 이사, 정중화 거사, 붓다의 마음 최화복 대표, 신상현 고전문화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사·선방의 禪 생활속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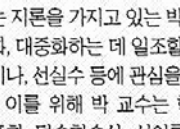
선학연구원장 박선영 교수



"선(禪)을 선방에서 일상으로 가져오는 일에 모든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지난 3일 무불선원 부설 한국 불교선학연구원장에 취임한 박선영(동국대 교 육학과) 교수는 현대인에게 선의 정수를 알리기 위해 학술적인 접근은 물론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의 선은 불립문자(不立文字)이기도 하지만, 불이문자(不異文字)도 되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박 교수는 "선을 이론화, 대중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강좌나 세미나, 선실수 등에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학술세미나, 월례발표회, 덕숭학술상, 선이룩강독회, 학술비 지원 등의 정례 사업을 강화하고, 연구원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개편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또 "홈페이지에 선학 관련 논문과 저술을 색인하고, 학술지의 이름을 <한국선학>으로 바꾸고,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논문심의위원'을 위촉하는 등 연구원이 사회에 다가설 수 있게 조직개편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오는 30일 수덕사 황하루에서 '만공과 한국선'이란 주제로 기념학술회의를 갖는다. 오중욱 기자(gobaou@buddhopia.com)

밀랍기법 재현... 범종 5천구 제작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좌 지정 원광식 씨



40여 년간 범종 제작에 몰두해온 원광식(59·성종사 대표)씨가 13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좌 분야의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주철좌는 일정한 틀에 쇠물을 부어 기물을 만드는 장인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종목. 원 씨는 우리 전통적인 범종 제작방식인 '밀랍주조기법'을 되살려낸 공로를 인정받아 '인간문화재'가 됐다.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이나 상원사 동종처럼 신라시대에 활발하게 제작됐던 밀랍주조기법은 조선 중기 이후 맥이 끊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밀랍주조기법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이다. 봄-가을에만 작업할 수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자연건조방식인 밀랍주조기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섬세한 문양을 새겨 넣을 수 있고 특히 소리의 신비함은 밀랍주조기법 따라올 수 없습니다." 원 씨는 3대째 내려오는 장인집안 출신이다. 17살 때부터 어깨너머로 종만들기를 배우던 원 씨는 21살 때 본격적인 장인의 길에 들어섰다. 지금까지 만든 범종은 5천구가 넘는다. 전국 사찰의 범종과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의 종 가운데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별로 없다. '재야의 종'으로 유명한 보신각종도 그가 만들었다. "일본에는 현재 신라종 42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밀랍주조기법으로 만든 것들이지요. 그 중 20여 구는 소재조차 찾지 못하고 있고요. 이 42구를 전부 복원하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권형진 기자

"부처님 자비 가르침 따랐죠"

불자에 신장이식 만성 스님

신장병을 앓고 있는 한 불자에게 신장을 이식해 준 스님이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담당 법천사에서 수행중이던 만성 스님은 지난 1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7년 간 신장병으로 투병해 온 불자 최정영(여·32)씨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었다.
지난 99년 화염경을 공부하던 중 스님은 고통받는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부처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스님은 곧바로 생명나눔실천회에 신장을 기증했고, 마침 최정영씨와 조직이 일치해 이식수술을 하게 됐다.
수술 전인 13일 최씨와 만난 스님이 "정영씨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건실한 불자가 되면 더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하자, 최씨는 "부처님의 가피로 수술을 받게 된 만큼 불제자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답했다.
한영우 기자(mwhan@buddhopia.com)



신장병을 앓고 있는 한 불자에게 신장을 이식해 준 스님이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담당 법천사에서 수행중이던 만성 스님은 지난 1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7년 간 신장병으로 투병해 온 불자 최정영(여·32)씨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었다.
지난 99년 화염경을 공부하던 중 스님은 고통받는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부처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스님은 곧바로 생명나눔실천회에 신장을 기증했고, 마침 최정영씨와 조직이 일치해 이식수술을 하게 됐다.
수술 전인 13일 최씨와 만난 스님이 "정영씨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건실한 불자가 되면 더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하자, 최씨는 "부처님의 가피로 수술을 받게 된 만큼 불제자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답했다.
한영우 기자(mwhan@buddhopia.com)

Advertisement for 'Snow Mountain White Jade Buddha' (雪山白玉佛). It features three white jade Buddha statues in the foreground and a large, snow-capped mountain peak in the background. The text includes the product name in large characters, a list of items (Hand, Creation, Produc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World Buddhist Fellowship (W.F.B) Korea Branch. A calligraphic inscription is also present on the right side of the advertisement.